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IR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 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212) 947-8382(B) 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연(스테판노)지과 콜럼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알버트 에스트(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문비) 베이사이드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렌,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종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광고모집

제1678호

2011.9. 4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
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오 8,15-20)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연중 제23주일

ㄹ 입당송 (시편 119(118),137,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릅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대영광송>

ㄹ 제1독서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3,7-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이여,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95(94),1-2,6-7,7,9(● 7과 8))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1.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2. 어서 와 엎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당신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3.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프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ㄹ 제2독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3,8-10)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2코린 5,19)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ㄹ 복음(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체송 (시편 42(41),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9/ 4 8시	이 상자	김 부균	방 경숙	박 미순
11시	이 창섭	양 명상	양 정남	이 총숙
9/11 8시	이 상식	함 봉국	함 경옥	이 경옥
11시	최 일환	조 위수	조 세실	최 금연

복 사 : 윤 정훈 & 조 중훈 안 정훈 & 김 도균
 봉헌자 : 김 여철&김 윤환 가족 다음주 : 정 철수&윤 구식가족
 헌금봉사 : 상지의 옥좌 Pr 다음주 : 존경하을 어머니 Pr
 운전봉사 : 조 영미 다음주 : 김 승우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안상용(생미사) : 지레오[회남] 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릉], 박아네스 봉헌
 임유리안나[창회](연미사) : 문아네스[옥회], 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김마리아[명수](연미사) : 손세실리아, 손아브라함[달구]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원크리스티나 봉헌
 조상님, 부모님(연미사) : 원크리스티나 봉헌
 노바오로[봉길](연미사) : 원크리스티나 봉헌

성가

입당 : 순교자 찬가 (성가 283)
 봉헌 : 제물 드리니 (성가 342)

성체 :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가 145)
 파견 : 103위 순교성인 (성가 285)



교회 소식

(1) 새 회계연도 시작

올해는 “구역, 단체모임 활성화의해”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여 활성화 하도록 합시다.

(2) 순교자 성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한국순교 성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9월이 되도록 합시다. 저녁 기도 후에 순교자 성월 (기도서 33 P)를 바치도록 합시다.

(3) 주일학교 한글학교 개학

주일, 한글학교가 다음주11일(주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부모님 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꾸르실료 소식

여성 제2차 영어 꾸르실료(9월15일(목)-18일(주일) 피정과
 남성 제33차 꾸르실료 피정이 (10월20일(목)-23일(주일)) 뉴튼 분도 수도원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간사 정우충(제임스) (917) 325-0779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M.E. (행복한 주말부부)

제66차 부부주말 피정이 어제3일(토)-5일(월)에 Wyndham Garden Hotel, Newark에서 있습니다. 우리본당에서 김덕현(베드로), 정옥(글라라) 부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은총 많이 받고 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성령세미나 소식

미동북부 성령세미나가 10월27일(목)-30일(주일) 까지 마리안 슈라인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회장 최일환(니콜라오) (347) 573-1417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7) “바보 추기경” 연극소식

9월17일(토) 오후8시 18일(주일) 오후3시, 오후8시에 뉴저지 페리시안 칼리지에서 있습니다. 티켓은 특석\$60 일반석\$30입니다.
 티켓구입은 구역장님, 단체장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8) 부주임 신부님 휴가

부주임신부님께서 지난주29일부터 이번주 9일(금) 까지 휴가 중입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 본당 모임

- 확대사목회의가 9월7일(수) 저녁8시 미사후 친교실 에서 있습니다.
단체장, 구역장님들 께서는 참석바랍니다.
 - 중부브롱스 구역회가 11일(주일) 저녁5시 정진웅(미카엘)
(646) 220-1258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3400 Paul Ave #1B)
 - 대건회 월례회의가 11일(주일) 11시미사후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대건회 회원의 많은참석 부탁드립니다.
 - ♥ 우리본당 인터넷 웹사이트(www.catholic.or.kr)가 개설되었습니다
웹사이트 클럽에서 “뉴욕 브롱스 성당” 검색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 * 이번달(9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중부 브롱스구역입니다.
다음달(10월)은 서부브롱스 및 맨하탄 구역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 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629.00
 교육헌금 : \$ 2,407.65
 감사헌금 : \$ 100.00(지창욱 가족)
 교 무 금 : \$ 100.00
 지창욱(8-9)
 Stewardship Appeal : \$20.00 누계 : \$ 8,745.00
 이상빈

한 탈렌트를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탈렌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섯 탈렌트, 두 탈렌트 그리고 한 탈렌트를 주고 떠났다. 그리고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하는데 다섯 탈렌트, 두 탈렌트를 받은 사람들은 돈을 배로 늘려서 가져왔는데 한 탈렌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 한 탈렌트를 다시 주인에게 바쳤다. 그러자 주인이 돈을 늘려서 가지고 온 종들에게는 칭찬을 하면서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지만, 한 탈렌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쓸모없는 종이라고 어둠속으로 내던져 버리라고 한다. 나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성서 말씀을 들을 때 마다 거부감을 느끼곤 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많이 받은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그 돈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고, 한 탈렌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곱절로 만들었어야만 내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서 말씀을 들을 때 마다 왜 예수님께서 애초에 조금밖에 안주시고는 그렇게 악한 종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다시 묵상해보면서 그 뜻을 깨달았다. 그 한 탈렌트 받은 사람은 바로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지만, 주위에서 보면 “나 같이 돈도 시간도 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이 뭘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한 탈렌트를 받고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하면서 고스란히 묻어두었다가 그 대로 주인에게 가져갈 사람들이다. 내 한 친구는 자기처럼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자랑할 직업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느냐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한다. 사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이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녀가 없으면 불편한 것도 많고 재미도 없다. 친구들 모임이든지, 다른 어떤 모임에도 그녀가 함께하면 그녀는 모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궂은일 다 도 맡아 하고, 무엇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술선수범해서 해결을 한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녀는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도와준다. 어찌면 이런 사람이 비록 한 탈렌트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 한 탈렌트를 가지고 몇 배로 더 늘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들은 후에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내가 너에게는 겨우 한 탈렌트밖에 안주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불렀으니 너는 착하고 성실한 종이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시지 않으시겠는가?”

우 몽은